

위례천막결사 대중 90일간 용맹정진 돌입

11월11일 상월선원서 입제법회
“으스러져도 좋다는 각오로 정진”
외호 대중 1000명 동참해 찬탄
상월선원 입제식 후 외부와 차단

“이 땅에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발원하면서 몸이 으스러져도 좋다는 각오로 정진에 임하겠다.”(진각 스님)
“우리의 정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부대중 모두의 결사가 되었으면 한다. 9명 스님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정진하겠다.”(호산 스님)
“머리를 깎고 절에 들었던 행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정진에 임하겠다.”(심우 스님)
“대중스님들을 잘 모시고 따르면서 결사에 임하겠다.”(도림 스님)
“외호 대중들의 시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정진에 매진하겠다.”(인산 스님)
한국불교중앙흥을 발원한 위례천막결사 대중들이 11월11일 오후 상월선원에서 입제식을 갖고 90일간의 용맹정진에 돌입했다. 한국불교 최초로 동안거 전막결사에 임하는 대중들은 이날부터 내년 2월7일까지 묵언을 실천하고, 하루 한 끼만을 공양하며 매일 14시간 정진에 나선다. 그렇기에 위례천막결사에 임하는 대중스님들의 각오는 남달랐다.
이날 위례 상월선원에서 진행된 동안거 결사 입제법회에는 종단 스님들과 재가신도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운집해 결연한 의지를 모아 묵속 권 정진에 나서는 결사 대중들을 찬탄했다.



11월11일 위례천막결사 대중들이 용맹정진을 시작했다. 좌로부터 도림, 재현, 진각, 심우, 성곡, 자승, 호산, 무연, 인산 스님.

종정 진제 스님은 상월선원 지객 호산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중생들은 무한한 전생의 습기가 태산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대신심과 대용맹심으로 일체처 일체시에 정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용맹정진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 지니고 있는 이 마음을 밝혀 만법의 당당한 주인이 되자는 데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상월선원에 대중들이 모여 두문불출하며 동안거 결제에 임하는 것은 생로 병사라는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 부처님 가르침인 생사해탈의 대요결성하기 위함”이라며 “상월선원 대중들은 인연에 따라 종단의 여러 소임을 맡아 원만히 성만하고 또 다시 수행의 고향으로 돌아와 결제에 임하고 있으니 수행자의 본분을 다한다 할 것”이라고 차하였다.
상월선원 입승 진각 스님은 결사에 임하는 대중들의 결연한 의지를 모은 고불

문을 낭독했다. 고불문은 지난 11월4일 상월선원 개원법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결사 대중들은 고불문에서 “부처님 당신이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들면서 맹세하셨듯이 저희도 당신을 따라 맹세한다”면서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려버려도 좋다, 가족과 뼈와 살이 녹아버려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연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저희의 맹세가 헛되지 않다면, 이곳이 한국의 불다가야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입제법회에 앞서 위례천막결사 대중들이 90여일간 정진할 상월선원 내부도 공개됐다. 검은 비닐하우스 형태로 건립된 상월선원은 내부에 9개의 개인용 텐트가 설치됐다. 각 텐트 앞에는 스님들이 정진할 좌박이 놓여 있었으며 스님들은 그 위에서 하루 14시간 정진한다. 결사 대중들이 머무를 텐트 안에는 별

도의 난방기구가 없으며, 좌복과 침낭 1개가 전부였다.
상월선원 외호종도감 해일 스님은 “결사 대중들은 90여일간 텐트 하나에 의지해 추위와 맞서면서 14시간 정진하고, 상월선원 내부에서 포행의 시간도 갖게 될 것”이라며 “외부와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된 상태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의료진이 문진할 수 있는 가로 50cm, 세로 30cm 규모의 쪽문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입제법회를 마친 9명의 결사 대중들은 오후 3시40분경 외호대중들에게 “정진 잘 하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상월선원에 들었다. 결사 대중들이 상월선원에 모두 들어간 이후 해일 스님은 상월선원의 출입문을 잠금쇠로 잠겼다. 이 자물쇠는 내년 2월7일해야 풀린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통도사성보박물관, 전통문화재 조각전

11월23일부터 12월21일까지
전통 불교조각 우수성 소개

우리나라 조각 장인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11월23일부터 12월21일까지 관내 기획전시실에서 기획전 ‘제16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전’을 갖는다.
대한민국 전통문화재조각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전통조각의 전승과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재 보수와 재현에 힘써온 조각 장인들을 격



승이라는 책임을 안고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기능인협회 조각인들이 1986년 창립한 단체다. 2년에 한번 전시회를 통

려하고자 마련됐다.
전통 문화재조각회는 생활 속에 민속과 함께 해온 뛰어난 조각품과 공예품의 보존과 전

해 전통미술의 품격을 높이는 한편, 세미나를 열어 전통미술의 보존과 전승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우리 불교조각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미술은 아름다움을 기반으로 깨달음이라는 불교의 궁극적 가치를 지닌 미술로 발전해 한국 조각사에 큰 획을 그었다”며 “불교미술의 많은 작품이, 그것도 격조 높은 조각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불교의 종교적 목적에 의해 형성됐기 때문이다. 우리 전통 불교조각의 보존과 창조적 발전을 위해 애쓰면서 이번

전시를 준비해온 전통문화재조각회 작품 작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불교미술은 전통문화로서 한국미술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며, 불교조각은 전통조각의 뿌리로 정착돼 격조 높은 한국조각사를 써 왔다”며 “이번 전시회가 전통조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예지적 감흥을 일으켜 전통조각의 향수를 충족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주영 전통문화재조각회장은 “삼국시대 전래된 불교는 우리나라 전통조각의 뿌리가 됐다”며 “어려운 여건과 현실에도 출품해 준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 را드리며 우리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95세 노스님이 목돈을 찾은 사연

기고-선운사복지재단
손동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시설 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에서 근무하는 손동인(66)씨가 11월13일 법보신문에 기고문을 보내왔다. 손씨는 요양보호사로 7년째 노후수행마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95세의 재덕 스님을 1년째 모시고 있다.
편집자



선운사 노후수행마을의 손동인 요양보호사와 재덕 스님.

며칠 전 제가 시봉하는 재덕 노스님께서 농협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을 차에 모시고 농협에 모셔다드렸고 스님께서서는 은행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스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협 직원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서둘러 가보니 그 직원이 저를 보며 노스님께서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다 찾으시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스님을 보니 정말 1300만원이라는 큰돈을 현금으로 찾고 계셨습니다.
노스님은 주변의 의아한 시선을 뒤로 하고 현금을 찾아 은행을 나온 뒤 곧바로 차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찾아 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내심 노스님이 저런 큰돈을 어떻게 모으셨을까, 왜 갑자기 돈을 다 찾으신 걸까 궁금했습니다.
차가 선운사에 도착했을 때 주지 스님은 외부 일로 출타 중이셨습니다. 노스님께서서는 종무실장님에게 “ 그동안 부처님 도량에서 받은 보시금을 한 톨도 쓰지 않고 모았으니 주지스님께 꼭 전해 좋은 곳에 써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종무소를 나와 큰스님 처소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전 재산을 보시한 이유를 여쭙습니다. 노스님께서서는 부

처님 도량에서 받은 용채는 함부로 쓸 수 없고 절에다 되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스님께서 한푼 두푼 모으셨을 그간의 과정이 떠올랐고 그것을 아무런 집착 없이 보시하고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고 가슴속 깊이 무언가 찡하게 느껴졌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순수하게 절에다 보시하는 노스님의 모습에서 역시 스님답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노스님은 올해 세수로 95세, 법랍으로도 71세입니다. 이승보다 저승이 더 가까워오는 연세에 모든 것을 툴툴 털어내고 홀연히 마음을 비운 노스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는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만 매몰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깊은 반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다 비우고 가는 삶. 부처님 도량에서 번뇌와 고뇌를 이겨가면서 생활하셨던 젊은 날의 그 수행의 길... 한 톨이라도 남았던 게 있다면 다 보시하시고 나누는 마음으로 떠나려는 노스님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맑은소리~, 류경희 선서화가 초대전

11월21~30일, 경주 황룡원서

월간-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대표 김운희)는 11월21~30일 경주 황룡원 건명홀에서 ‘맑은 문인화-류경희 초대전’을 갖는다. 맑은소리맑은나라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초대전에서는 류경희 작가의 다채로운 선화를 만날 수 있는 정갈하면서도 풍성한 전시가

마련된다.
류 작가는 전통적인 문인화의 형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진력하며 선(禪)적인 색채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작품세계를 구현해오고 있다. 지난해 3월 번원사 불일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데 이어 지난 6월3~12일 두 번째 개인전을 연 바 있다. 051)244-0263
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깨우침을 던져주는
수행자의 화두시집

하얀 고무신

해맑은 샘물처럼 솟아 흐르는
감성의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끝없이 사유(분사)합니다.

하얀 고무신 달빛으로 껴매어 땃돌 위에 놓으니 바람에 낙엽 한 잎 들어앉는다 깊은 밤 지새우며 가슴속을 떠나지 못하는 탐진치 삼독심(三毒心)을 살포시 내려놓는다

- 이 시집의 표제시(表題詩)가 되는 작품 ‘하얀 고무신’은 해성 스님에게 내재된 덕목이나 염불 등 성직자로서의 수행이 바로 그 과정에서 동반하는 심경(心境)을 적나라하게 적시하고 있다.

해성 스님은 이 시집 ‘하얀 고무신’을 통해서 그동안의 신행(信行)에서 획득한 인생관이 바로 존재와 자아를 인식하는 일에서부터 영혼을 탐구하는 그 리움의 진원지를 모색하고 존재의 형태나 지향해야 할 지표가 바로 자비행(慈悲行)임을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과 화해시키는 그의 가치관을 명민(明敏)하게 적시하고 있다.

- ‘해성 스님 시세계’ 중에서, 김송배 시인 (전,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